

◆ A Study of Dae-gu Public Library as a Soial Education Instiutuation for Enlargement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대구시립도서관 확장을 위한 비교 연구

김 남 석
(계명대학 도서관장)

1. 연구의 취지 및 목적

한국도서관법 제2조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이란 기록된 지식,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이를 널리 일반 민중의 이용에 이바지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라고 하고 또한 Alvin Johnson은 그의 저서 The Public Library의 부서명에서 A People's University란 말을 쓰고 이는 이저서에서 공공도서관이란 봉사 대상이 얇의 문제를 지닌 민중이기 때문에 민중의 교육을 받는 민중의 대학이다 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계속교육장으로써 학교교육을 받는 자나 학교교육을 떠난 민중들에게 오늘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의 적응을 위한 자기교육과 오락을 통한 여가의 선용과 지역사회의 공공단체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서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다른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뒤져 있으며 여기에 비하여 대구시의 경우는 한국공공도서관 일반기준에 비하여서도 뒤져 있다. 1936년 당시인구 108,669명을 위한 도서관으로 연건평 165평 2층건물로 장서 13,084책으로 년간 이용자는 14,858명으로 일일 평균 62명에게 봉사하므로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도서관으로 발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이 1949년 시청사의 화재로 인한 폐관을 계기로 침체 현상은 아직도 도서관으로써의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969년 1,034,234명에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도서관 시설을 보면 독립청사도 없는 하나의 도서관이 있으며 대여하여 사용하고있는 연건평은 324평에 장서 29,144책으로 시민 1인당 장서비는 0.028책이고 열람석은 312석으로 시민 3,193명에 1석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립도서관의 시설의 부족으로 나타난 것이 23개의 사설 독서실이라고 하겠다.

공공도서관의 부진한 현상은 사회교육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본연구는 이러한 대구시의 공공도서관에 확장을 위한 제언을 힘으로써 대구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1971년 6월

18일 오전 경북지사의 공부하는 대구시민이란 명목아래 시립 도서관의 신축을 지시하리만큼 당면한 시립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어 앞으로 대구사회에 시립도서관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 연구는

- 1) 대구시의 사회적인 발전과 문화시설에 관한 현황을 고찰하고
- 2) 한국공공도서관의 현황과 대구시립도서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 3) 선진 외국의 제도시와 현, 군의 공공도서관 현황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 4) 대구시 지역사회의 시립도서관 확장을 위한 제언을 통하고자 한다.

요약 및 제언

본 논문에서 조사된 사실을 요약하고, 대구시립도서관의 확장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인구의 대구집중도는 1910년 30,713 명에서 1969년 12월 현재 1,034,234명으로 늘어 남으로 59년 동안에 약 34배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인구증가에 따라 대구시 지역은 1929년 까지 9.25km²로 되어 있던 것이 1969년 현재 19배가 넘는 178.32km²로 확장 되었다. 대구시의 재정역시 1960년 190,000,000원에 비해 1970년 예산은 40배가 넘는 7,743,000,000원으로 늘어 났다.

이와 같은 대구시의 지리, 인구, 재정적인 면 등 제 조건은 19배에서 40배 이상의 확장을 하였다. 그러나 시립도서관은 1919년 당시의 인구 4만명 (일본인 1만명 포함)에 봉사하던 시설에서 거의 확장을 보지 못한 실정에 있다.

2. 공공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총549명에 1,655석의 좌석을 가진 23개의 사설 독서실과 건평 400평에 739석의 좌석과 8,182권의 자료를 가지고 1971년 5월 5일 개관을 본 학생도서관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설은 시립도서관의 부족현상을 직접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3. 별표 6-2에서와 같이 외국의 군, 시, 현립도서

관의 경우를 보면 위에서 논술한 4개의 도서관 모두 1개관당 봉사인구는 6만명을 넘는 도서관은 없으며 이들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문고나 특수셴타 등에 의하면 1개관당 봉사인구는 1,000명 미만으로 되어 있다. 장서의 1인당 비를 보면 0.5책이 넘지 않는 곳은 없고 직원의 경우에도 1인당 대상인구가 10,000명을 넘는 곳은 없다.

여기에 비하여 한국의 공공도서관과 대구시립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한국공공도서관은 58개관으로 1관당비는 552,689명이고 총장서는 563,427책으로 1인당 0.017책, 직원수 447명에 1인당 봉사 대상인구는 98,355명에 예산은 1관당 2,761,376원 정도이다.

대구시립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100만이 넘는 시민에게 1관이 있으며 시민 1인당 장서는 0.03책에 도서 구입예산은 년간 1인당 1원 55전이다. 직원의 봉사대상인구는 1인에 47,010명이다.

선진국에서는 도서관 시설은 공공도서관이 민주시민양성에 사회교육시설로서 중요한 시설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반면 한국의 공공도서관과 대구시립 도서관의 경우는 보다 선진국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도서관의 설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별표 6-3에서의와 같이 한국 도서관 기준과 외국공공도서관의 기준을 비교하므로써 대구시립도서관의 확장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4. 도서관수 : 표 6-3은 대구시에 있어서 행정구역에 따라 5개 구청으로 나누어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5개 구청에 각 1개의 도서관을 생각하고 이 5개 도서관을 인구비에 의한 시설기준을 내어 본 것으로 적어도 4,290m²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봉사인구 20,000~100,000명에 1개관이 있어야 한다는 Charles Armstrong 실험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대구에는 10개의 도서관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거리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三浦道雄의 1km 내에서 도서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도서관과 도서관의 거리는 2km 내에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하면 하나의 도서관이 차지하는 봉사면적을 4km²로 보아 45개의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이러한 제기준의 이상적인 목표를 따져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하나의 중앙도서관과 4개의 구청 도서관을 설립하고 이 구청도서관에서 지역셴타와 순회문고 등에 의한 운영으로 원활을 기할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대담한 바 있는 분들에 의하면 가장 이상적일 수는 없으나 우선 구청 단위의 도서관은 있어야 겠다는 것이며 지금 추진중인 시립도서관은 하나의 중앙도서관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도서관 수에 관한 제언은 1차적으로 1개의 중앙도서

관과 2차에 4개의 구청도서관 그리고 3차에 4개의 분관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남구, 북구, 동구, 서구에 설치함으로써 대구시에는 최소한 9개의 도서관으로 그 망을 형성함으로 Charles Armstrong이 말한 운영에 가장 적절한 10만당 하나의 시립도서관이 있게 되는 것이며 특수한 외곽지를 제외하고는 2.2km 범위 내에서 도서관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역성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5. 장서 : 표 6-3에서 보는 대구시립도서관의 장서는 초창기 군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한국 공공도서관 기준에 의한 것으로 봉사인구 3명에 1책 비율로 적어도 대구시에는 344,745 책의 장서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의 10%에 불과할 정도이고 연간증가 도서 4,000권에 비해 1970년 1년동안에 증가하는 이의 3분의 1정도이다. 도서관이란 건물이나 의자 등 시설만으로 구성될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시립도서관을 생각할 때 시설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새 대구시립도서관 건립에는 이러한 장서의 증가를 위한 계획도 있어야 하겠다.

제언으로 선진국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나라가 쓰런으로 1인당 도서는 3.98책인데 비해 영국의 Devon국에서는 2책, Chicago시에서는 1.3책으로 되어 있다. 대구시립도서관으로서는 이러한 선진국의 경우를 따라 갈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립도서관으로서는 1인에 1책에 해당하는 100만 이상의 장서는 있어야 하겠다. 이것은 Gretchen K.Schenk의 실험에 의한 것으로 시민의 25%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이다.

6. 직원 : 전문적 사서는 한국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의하면 대구시의 경우 27명의 전문직사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봉사인구 2,500명에 전문적 사서 1명이 있어야 한다는 미국의 공공도서관 기준에 의하면 대구시의 경우는 414명의 사서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로써 남은 3분의 2를 일반적으로 한다면 1,242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비교하여 볼때 한국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해 산출된 전문직사서 1인당 봉사 대상인구는 12,780명으로 선진국에서 하나의 도서관이 담당해야 할 인구인 것이다.

제언으로는 봉사인구 2,500명에 도서관직원 1명으로 해서 414명의 도서관직원에 미국의 공공도서관 직원기준에 의하여 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8명의 전문직 사서가 최소한 있어야 한다.

7. 예산 : 예산에 있어서는 도서관법 제19조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당연성이 아니고 "할수 있다"고 극히 애매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 생크 의 보

고에 의하면 최소한 주민 1인 1책에 해당하는 1년예산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하면 대구시의 경우는 도서비 기본 가격을 527원 21점으로 계산한다면 544,258,507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대구시민에 알맞은 이상적인 도서관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예산의 확보는 현재 대구시의 예산실정으로는 어려운 것이며 선진국의 경우 1책의 예산에 3분지 1에 해당하는 것에 비하여 대구시의 경우도 한국 출판물 평균 가격의 3분지 1인 175원 74점으로 하여 182,714,913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있어야 겠다.

이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1) 도서관법 제19조에 명시된 국고보조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의무화함으로써

시도의 예산보조를 받도록 한다. 2) 사회교육에 관한 특별 부과금이나 목적세인 공공도서관등의 세제 설치로서 건전한 재정의 뒷받침이 되도록 공공도서관 육성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해야 될 줄 안다. 3) 독지가나 기업체들의 공공도서관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면세의 혜택을 줌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기한다. 4) 시설의 확충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피, 알하고 열람업무의 강화를 통한 사용자 및 기타의 이용을 통한 계수업에 : 써야 한다. 5) 중앙도서관의 남본규정을 참작하여 대구시에서 발간된 제 도서의 남본제도와 개인문고의 설치를 통한 장서의 증가를 기해야 할 것이다.

<표 6-1>

시립도서관과 제 교육시설

1970 12월 현재

구 분	대구시립도서관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학생도서관	사독서실	한국공공도서관	극장	교회
대상인구	1,034,234	291,067	—	—	—	32,056,000	—	123,395
관수	1	135	1	1	23	58	31	327
좌석	312	51,691	739	1,655	13,114	21,674	—	—
자료	31,524	929,488	8,182	0	563,427	—	—	—
종사원	22	196	25	23	447	538	969	—
예산(71년)	15,661,500	104,829,549	6,610,000	—	177,447,450	—	—	—
이용통계	110,516	2,554,606	1일평균 731	86,905	2,738,660	11,810,074 (1인年11.4회)	—	—

<표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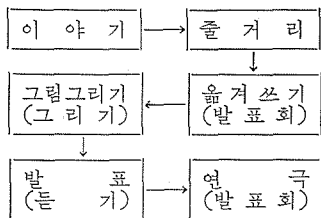
외국의 군(郡), 현(縣), 시립도서관과 대구시립도서관

구 분	영국(1969년)		미국(1968)	일본(1965년)	한국(1970년)	비고
	Cornwell군	Devon 군	Chicago 시	山口縣	대구시	
인구	259,900명	436,810명	3,602,962명	1,602,000명	1,034,234명	==1관당인구
관수	19(18) =13,679=	44(43) =9,928=	63(62) =57,189=	35(3) =45,7711=	1	
년 예산	£158,980 (146,420,580원) #563#	£322,525 (197,045,525원) #451원#	\$10,654,696 (3,942,237,520) #1,097원#	¥138,676,000 #¥86#	15,661,500 #14	£=921원 \$=370원 #1인당도서관비
자료비	£56,750	£119,375	\$1,871,716	17,832,000	1,603,200	—
도서관세	4d	4d	\$2.26	—	—	d=9.21원
장서	337,336 (1.3)	847,010 (1.94)	4,000,000 (1.11)	869,585 (0.54)	31,524 (0.03)	()1인당장서
년간구입	43,599	130,746	536,000	30,502	2,191	—
계적	27,836	57,200	—	4,581	—	—
자동차문고	9	14	25	5	1	—
특수센타	22	77	286	621	—	—
직원(전문)	77(27) =3,375=	178(20) =2,454=	1,671(220) =2,156=	174(61) =9,207=	22(3) =47,011=	==1인당 봉사인구
년간대출	2,906,749 (11)	5,925,659 (13)	7,931,960 (2)	503,244 (0.314)	61,327 (0.059)	()시민1인당 년간대출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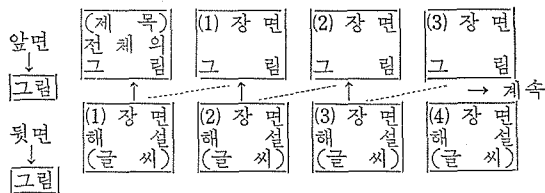
(17면에 계속)

파악하여 이야기의 시대, 배경, 사건을 바르게 알도록 하여 읽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활동이 된다. 긴 글을 몇 장면으로 나누어 연출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 감상문을 요약하여 쓰고, 읽고, 발표하고, 듣는 공부도 되기도 한다.

○그림 연극을 꾸미는 과정



○실제 만드는 과정



글의 앞면에 그 글의 내용이 담긴 그림이 있어서는 그림 연극을 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1)장면의 글을 읽을때에(1) 장면의 그림은 앞서서 나와야 연극이 되는 것이다.

(라) 감상 적기와 批判(適用)

<보기>

사랑의 학교 '아버지의 선생님'을 읽고

우리 아버지가 소학교 다닐때 가르쳐 주신 그로세더 선생님 이 문교부 장관으로 부터 공로상을 받는다는 신문을 아버지께

(13면에서 계속)

<표 6-3>

제 기준과 대구시립 도서관 확장을 위한 시안

구 분	한국공공도서관기준	기 타 기 준	시 안	비 고
관 수	5	45(1) 10(2)	9(분관4)	1개군에 1개관을 표준한 것임.
면 적	4,290m ²	3,450m ² (3)	4,290m ²	
열 람 석	1,610	5,171석(4)	5,171석	
장 서	9,600권	344,745권(5) 1,034,234권(6)	1,034,234권	
직 원	81(27)	1,242(414)(7)	414(138)	()내는 전문사서
예 산		544,258,507(8)	182,714,913원	

- 三浦道雄의 1km내에서 도서관을 발견하고 도서관과 도서관의 거리는 21m 이내에 있어야 한다. 1관 봉사 반경 4km² 178.32km²×4km²
- Charles Armstrong 실험결과 봉사인구 100,000명에 1관이 있어야 한다. 대구시 인구 1,005,000명 ÷ 10만 =
- 三浦道雄: 10만 이상인구에 1,000인당 27.6m²의 시설이 필요 100만÷1,000인×27.6m²=
- 三浦道雄: 인구 1,000인당 5석 1,034,200명÷1,000×5석 =
- 한국도립 실험조사에 의한 시안: 공공도서관인구 3인당 1책 1,034,234÷3명 =
- Gretchen Knief Schenk의 보고 1인당 1책 1,034,234명×1책
- A.L.A. Public Library Service 봉사인구 2,500명에 전문사서 1명 1,034,234명÷2,500명 =
- Schenk 보고에 의한 주민 1인당 1책에 해당하는 예산 1,034,234명×527.21원(1970년 한국출판협회 조사 평균 1책대금)

서 읽고 먼 시골로 일부러 축하하러 가신다는 이야기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씨를 본받게 되었다. 밤새도록 그로세더 선생님 얘기를 들려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재훈의 글>

이솝이야기 '겉장이 포수'를 읽고

사냥을 나온 포수가 사자 발자국을 따라 가다가 그 발자국을 잃어버린 사자 발자국 못봤어요? 하며 멍멍 거리다가 '저리로 가면 사자를 만날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포수는 새파랗게 되어 사자 발자국만 찾았지 사자를 찾은건 아니라고 한 얘기는 정말 말로만 섹척하고 용감한체 하지만 정말은 겁질 뿐이라는 겉장이를 비꼬는 얘기라고 느꼈다.

<이병근의 글>

세임금 솔로몬 왕의 '슬기로운 재판'을 읽고

성경에 솔로몬의 잠언이란 뜻이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아기를 들로 나누어 받은 이 여자에 주고 받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라는 재판으로 간사한 여자를 구별해 내는 것은 참 훌륭한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은순의 글>

6. 結 語

한 人間으로서는 물론 國民으로서, 祖國近代化의 민족중흥을 指向하는 오늘의 절박한 問題들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人生과 社會를 形成하는 기본 道德 政治科學 및 倫理的理想을 어떻게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인가? 삶의 가장 중요한 方向을 提示하여 주는 叢書, 思索 및 自己表現의 교양을 古典으로서 問題의 解答을 얻도록 해보자.